

# 광주 집값 고공 행진

## U대회 선수촌 건립 여파 3.3㎡ 당 94만원 올라 2년간 26% ↑ 전국 1위

최근 2년간 광주지역 집값 상승률이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형 건설업체들은 새 아파트 공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광주의 집값은 2년 전인 지난 2011년 1월 4주 기준 3.3㎡(1평) 당 357만원에서 올 1월 4주 기준 451만원으로 26.1%나 상승했다. 광주에 이어 506만원에서 628만원으로 오른 경남(24.1%)이 2위, 410만원에서 502만원으로 오른 충북(22.3%)이 3위를 차지했다.

광주의 집값 상승요인은 최근 수 년 간 대규모 아파트 분양이 없었던 데다 지난해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 건립에 따라 업무·화장주공아파트 주민들의 대규모 이주 등으로 전세풀리현상이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1월까지 광주지역 아파트는 5년 전에 비해 1억 원 이상 아파트가 2배 이상 늘어난 정도로 가격이 뛰었다. 광주지역의 1억

원 이상 아파트는 지난해 1월 기준 21만5735가구 중 14만4909가구로, 67.1%를 차지했다. 1억 원 이상 아파트는 지난 2008년 1월 7만 9527가구로 전체의 39.1%에 불과했지만 2009년 8만3605가구(39.8%), 2010년 8만 9004가구(41.6%)로 꾸준히 증가했다.

여기에 2011년 전세 풀리현상까지 보이면서 아파트 가격이 들쭉거렸고, 1년 새 1억 원 이상의 아파트가 5만여 가구 가량 늘면서 비중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대형건설업체들은 새아파트 공급에 나서고 있다.

오는 8월에는 이지건설이 광산구 선암동에 광주선운지구이더리얼을 분양할 계획이다. 50가구 규모로, 전용면적은 미정이다.

11월에는 현대산업개발이 동구 학동 3구역(재개발)에 '광주학동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총 1410가구로 조합원 물량 206가구를 먼저 공급하고 11월 120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은 59~117㎡로 구성되며 학강·방림초등학교, 조산대, 광주 시립 사직 도서관 등 교육 시설과 가깝다.

광주 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광주의 집값이 2년 동안 급격한 상승을 보였지만 최근 광주지역에 분양된 아파트 2만5000여 세대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다"며 "올해 아파트 가격은 포함세나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지역경제 '호전' 기미

작년말 생산·건축·판매 늘어

지난해 말 광주·전남지역 경제가 다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최근 광주·전남경제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과 건축공민적, 대형소매점 판매액 등이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 11월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 같은달과 비교해 광주지역은 -8.4%에서 +6.7%로 증가로 전환했고, 전남지역은 +0.0%에서 -0.1%로 소폭

감소로 전환했다. 건축공민적은 광주가 +106.2%에서 +206.0%로 증가폭이 확대됐고 전남지역은 -69.5%에서 -13.3%로 감소폭이 축소됐다.

지난해 11월중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불변가격기준) 전년 같은달과 비교해 광주지역이 -0.5%에서 +7.5%로, 전남지역은 -3.3%에서 +3.2%로 모두 증가로 전환했다. 승용차 신규등록대수도 광주(+5.

5%→+19.4%)와 전남(-3.0%→+13.5%) 모두 증가폭이 확대됐다.

지난해 12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과 비교해 광주지역이 소폭 하락(+1.1% → +1.0%)했고 전남 지역은 전달과 동일(+1.5%)했다.

지난해 12월중 실업률은 광주가 전달보다 하락(+2.1% → +1.8%)했으나 전남은 상승(+1.2% → +1.5%)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봄 트렌드는 '파스텔'

24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핸드백 매장 직원들이 다양한 색상의 가방을 선보이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졸업·입학선물로 핸드백, 지갑 등 패션잡화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백화점측은 설명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아시아나 항공 중 '최고 기내 서비스상'

아시아나항공이 2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현지 유력 여행전문지 '트래블 앤 레저' 주관으로 열린 '2012 세계여행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기내 서비스상을 수상했다.

첨단 기내서비스뿐만 아니라 중국 각 지역에서 지역 학교와 자매결연, 계속 후원한 '아름다운 교실' 프로젝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아시아나항공은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동광자오바오(Oriental Morning Post)로부터 '세계 여행대상', 베이징왕바오(Beijing Evening News)에서 '최고 서비스 품질기업상'을 각각 받는 등 중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항공사로 인정받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

## 올 주가 상승률 1위 '금호산업' 215% ↑

올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금호산업으로 작년 말 종가 대비 214.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경영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작년 말 1천555원에서 지난 22일 4890원으로 214.47% 급등했다.

2위는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되는 씨니전자로 144.19% 올랐으며, 동양(105.01%), 대한해운(97.97%)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 농어촌공 12조 태국 물사업 수주 총력

한국농어촌공사 태국 정부에서 홍수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12조 4000억원 규모 태국 통합 물관리(홍수예방)사업 수주를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 23일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태국 물관리업무 총괄 기관인 왕립관개청(RID)을 방문해 러릿콧 코와타나 청장을 만나 수자원 및 관

개 분야 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홍수 및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응한 관개시설 설치와 수자원 관리 등 농업분야 수자원 및 관개발전을 발위한 상호기술협력을 늘려가기로 합의했다.

오는 2016년까지 총사업비 12조 4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국

제경쟁입찰로 최종 적격자가 선정된다. 현재까지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태국 등 8개 컨소시엄이 수주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태국정부는 이날 말 참여후보업체를 발표하고 오는 4월10일 사업별 적격심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태국 통합 물관리사업이란 지난 2011년 대홍수로 54조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뒤 저수지(댐)와 방수로, 홍수 저류지, 하천 보강 등을 통해 항구적 물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되는 태국형 4대강 사업이다.

한편 박 사장은 지난 21일 농어촌공사와 태국 왕립관개청이 기술교류 세미나를 열고 수자원 분야 정보통신발전과 홍수예측 및 모니터링 등 신기술 설계에 대해 논의했다.

박 사장은 "태국 물관리사업 수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며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지난 21일 태국 왕립관개청 앞에서 러릿콧 코와타나 청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제공>

## 학생가방 70% 안전성 미달

4500개 공산품 단속

학생용 가방 10개 중 7개는 정부가 마련한 안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3천246개 품목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학생용 가방의 부적합률이 70.0%로 최근 7년간 평균치(53.9%)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전기매트(38.9%), 전기장판(40.

5%), 전기방석(40.0%), 멀티콘센트(62.5%), 학생용 가방(70.0%)가 속눈썹접착제(51.6%), 유아용 섬유제품(22.9%)도 부적합률이 7년간 평균치를 상회했다.

기표원은 이에 따라 올해 학생용 가방을 비롯한 이들 7개 품목에 대해 안전성 단속을 강화하고 2회 이상 조사와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불량률을 낮추기로 했다.

기표원은 올해 불량률이 높은 품목, 소비자 불만 신고 품목, 노약자·

어린이용품 등을 중심으로 작년부터 38.6% 증가한 4500개 이상 공산품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제조사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한 뒤 판매할 수 있게 된 속눈썹, 자동차 브레이크 등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집중적으로 리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사이트(www.safetymkorea.kr)에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새얼굴

### "중소 적극 지원...경제 활성화 앞장"

허정수 KB국민은행 호남남지역본부장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은행,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는 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1월 부임한 허정수(52) KB국민

은행 호남남지역본부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앞장서겠다"며 "국가고객만족도 7년연속 1위 은행답게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은행



이 되었다"고 말했다.

광양 출신인 허본부장은 광주제일고와 동국대학교, 헬싱키경제경영대학원(MBA과정을 졸업했다.

1990년 입행한 뒤 재무관리부장, LH지점장, 명동영업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은미기자 emlee@

탈북미녀와 감동베라이어티 쇼!

함께하는 이끼 만나러 갑니다

CHANNEL 매주 일요일 밤 11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스카이라이프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채널A